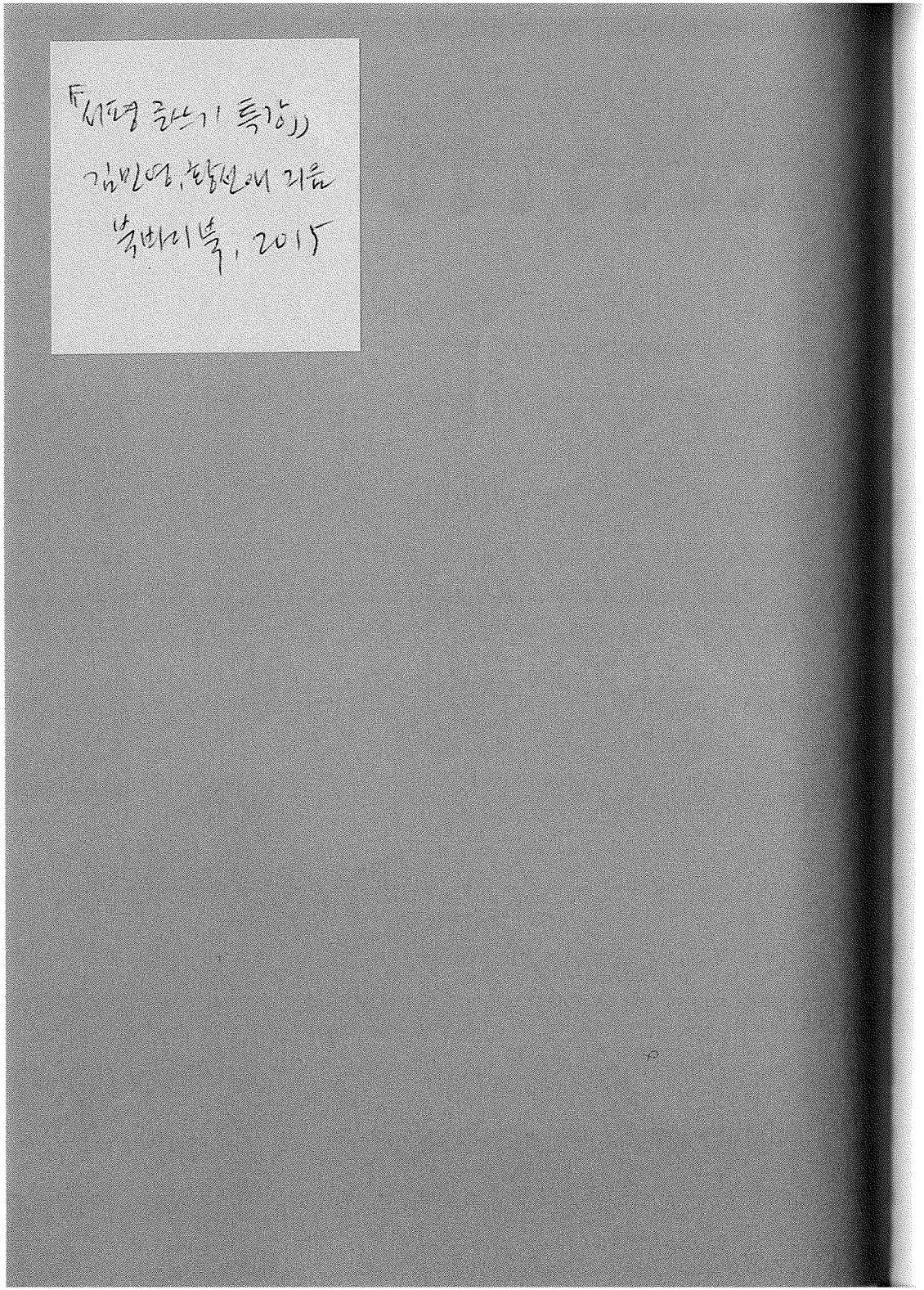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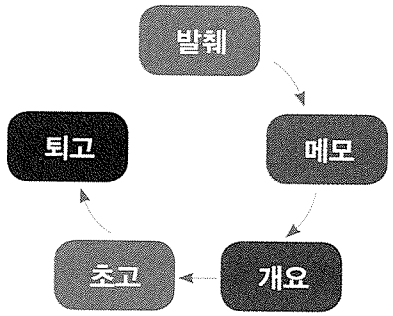


01
서평 쓰기 로드맵

잘 읽히는 책을 만나면 책장이 술술 넘어갑니다. 놀라운 집중력으로 단숨에 읽어버리는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 읽히는 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독자와 저자가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잘 맞는다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수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잘 골라야 합니다. 일단, 잘 읽혀야 서평 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글쓰기 경험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서평을 잘 쓰긴



▲ 서평 쓰기의 과정

어려울 것입니다. 위의 표는 서평 쓰는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서평 쓰기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평에 도착하는 경로인 셈이지요. 조금 귀찮더라도 이 과정을 밟다 보면 내공을 다질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서평이라도 자연스럽게 써내는 유연성이 생깁니다. 이제부터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발췌

발췌는 인상 깊은 부분을 옮겨오는 글쓰기입니다. 책 읽는 스타일에 따라 밑줄, 접기, 메모를 할 수도 있고, 깨끗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평을 쓰려면 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연스레 인상 깊게 본 부분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좋아서, 재미있어서, 공감이 가서, 이해가 안 돼서, 특이해서, 감동적이어서 등등 여러 이유로 표시를 합니다. 이를 모으면 서평의 씨앗이 됩니다.

이때 독자들은 대략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첫째,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표시를 해도 되는가? 둘째, 표시한 부분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답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담뿍 담을 독후감이라면 당연히 자유롭게 표시하면 됩니다. 공감 가는 문장에 밑줄을 긋거나 표시를 하고, 옮겨 적다 보면 작가의 말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감정들이 모여 독후감 및 서평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표시한 부분이 너무 많아 고민이라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한가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준은 서평의 '주제'입니다. 주제는 곧 하고자 하는 말, 메시지입니다. 이 서평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와 관련된 발췌문을 적절히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발췌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

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읽어도 남는 게 없고, 한마디 쓰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발췌의 힘입니다. 발췌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주관적 발췌와 객관적 발췌입니다.

주관적 발췌	객관적 발췌
· 내가 감동적으로 느낀 부분 · 내가 재미있게 읽은 부분 · 내가 유익하다고 느낀 부분 · 내가 의문점이 드는 부분	· 작품의 주제가 드러난 부분 · 작가가 강조하는 메시지 · 작가 고유의 색이 드러난 부분 (작가의 다른 책과 비교하며 찾기) · 독자나, 전문가들이 높게 평가하는 부분

▲ 내용 발췌법

독자에 따라 주관적 발췌와 객관적 발췌가 다를 수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둘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메모

메모는 생각 기록장입니다. 불현듯 떠오르는 단상부터 밑줄 그은 부분에 대한 생각, 저자에게 묻고 싶은 것들 등 무엇이든 기록합니다. 저는 책 귀퉁이에 포스트잇 붙이기를 권합니다. 책과 분리된 수첩에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되도록 책 안에 기록의 흔적이 있어야 다시 볼 수 있고, 글 재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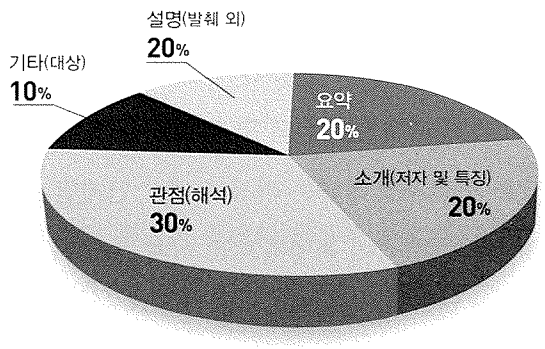
1차 메모는 위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하고, 2차 메모에서는 글감을 정리합니다. 서평의 소재를 찾아 분류하고 구분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즉 주제 선정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담을 것인가도 확인해야 하니까요.

대표적인 소재로는 책의 주요 내용 요약과 작가 소개, 발췌, 관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책의 특장점 소개도 덧붙이면 더욱 친절한 서평이 됩니다. 글에 따라 집필 과정이나 책 속 에피소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정하는 과정이 메모 단계입니다. 1~2차 메모를 거치면 윤곽이 분명해지고, 이때 색이 다른 포스트잇을 활용하면 보다 쉽게 정리됩니다.

개요

개요란 일종의 틀을 말합니다. 어떤 틀과 설계도로 글을 써 나갈 것인지 방향과 모양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서평의 틀은 그리 다양하지 않아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여러 형태로 써봐도 좋고, 여러 책을 각각의 방식으로 정리해도 좋습니다. 시작과 마무리가 막막한 초보 서평가라면 오른쪽의 표를 참조해도 좋습니다. 또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전문가 서평을 아래의 표처럼 분석해봐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일종의 흐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서평 쓰기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런 지도가 필요합니다. 자기 나름의 지도를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 전문가 서평 분석

A타입		B타입	
1문단	작가 및 작품 소개	1문단	발췌
2문단	줄거리 / 주요 내용 요약	2문단	작가 및 작품 소개
3문단	발췌 및 해석	3문단	줄거리 / 주요 내용 요약
4문단	전체 느낌 / 추천 대상 / 추천 이유	4문단	전체 느낌 / 추천 대상 / 추천 이유
C타입		D타입	
1문단	줄거리 / 주요 내용 요약	1문단	읽게 된 배경, 단상
2문단	작가 및 작품 소개	2문단	줄거리 / 주요 내용 요약
3문단	발췌 및 해석	3문단	발췌 및 해석
4문단	전체 느낌 / 추천 대상 / 추천 이유	4문단	전체 느낌 / 추천 대상 / 추천 이유
E타입			
1문단	전체 느낌 또는 평, 간단한 작가 및 작품 소개		
2문단	줄거리 / 주요 내용 요약		
3문단	발췌 및 해석		
4문단	추천 대상 / 추천 이유 / 마무리		

▲ 서평의 틀

초고 쓰기

개요까지 준비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서평 쓰기에 들어갑니다. 서평 본문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②	③
요약 (문학 / 비문학)	**소개** (책의 특징, 작가 소개 등)	**관점** (추천 이유, 비추천 이유)

▲ 본문 내용 구성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요약하고, 책의 특징을 소개하고, 이 책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이유를 쓰면 됩니다. 내용을 압축 정리하는 요약, 책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팩트 정리, 자기 관점을 쓰는 비평 등 각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가 서툰 분이라면 세 파트를 각각 한 단락씩 써보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요약 노하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문학은 여러 인물이 나오면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는 주인공을 중심에 두고 주변 인물 2~4인을 소개하면 됩니다. 이때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인공과 해당 인물과의 '관계'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인물 관계도가 명확해야 줄거리를 따라가기 쉽습니다. 몇 명을 소개할 것인지, 누구를 소개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 관계를 풀어가면서 자연스레 책 속 상황을 설명합니다. 분량은 전체의 4분의 1에서 4분의 2 정도를 추천합니다. 너무 짧으면 아쉽고, 길면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은 사람이나 읽지 않은 사람 모두를 고려한 분량이면 좋습니다.

비문학 요약은 조금 더 쉽습니다. 목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차에는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중심 키를 찾고, 그것을 연결하면 알찬 요약이 됩니다. 비문학도 마찬가지로 모든 내용을 다 담으려 하지 말고, 핵심만 간추려 쓰면 됩니다. 분량은 문학과 마찬가지로 고려하면 됩니다. 소개 부분은 공개된 팩트를 중심으로 엮으면 되겠지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관점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추천하는 이유만 구체적으로 쓰면 됩니다. 그저 재미있다, 좋은 책이다라는 칭찬만으로는 안 됩니다. 어떤 점이 어떻게 재미있고, 읽을 만한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발췌를 통해서든 에피소드 소개 위주든 눈에 보이는 예로 책을 권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살을 붙여 초고를 써볼까요. 초고를 쓸 때 주의할 점은 첫째, 잘 쓰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욕은 만병의 원인입니다. 멋진 문장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퇴고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선은 펜 가는대로 쓰면 됩니다.

둘째, 쓰면서 고치지 말고 다 쓰고 고치는 겁니다. 서평 수업할 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글을 쓰면서 고칩니다. 지웠다 다시 쓰기를 반복하며 제자리걸음을 합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나면 지치게 되고, 결국에는 마무리를 못합니다.

글은 몇 번이고 묵히고 다시 봐야 좋아집니다. 대부분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 마음에 드는 문장이나 단단한 논리를 만들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난 글쓰기 재능이 없어"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글은 묵히고 다시 고치는 만큼 좋아집니다. 이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끝까지 자유롭게 쓰고, 다시 보길 권합니다.

셋째, 자기 생각을 충분히 씁니다. 초고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최종고보다 분량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래야 버릴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책에 대한 입장, 즉 자기 생각을 충분히 풀어 써야 합니다. 논리적 근거도 부족하고, 구체성도 떨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내 생각이라면 자신감 있게 써봅니다.

퇴고

서평 쓰기는 퇴고가 8할입니다. 서평의 완성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퇴고입니다. 보통은 글을 쓰면서 고치기 때문에 묵히는 시간을 못 견딥니다. 어차피 묵히고 고쳐봤자 좋은 서평이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묵히는 시간을 잘 견디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글을 잘 쓰고 싶다면, 반드시 퇴고 습관이 필요합니다. 버티고, 다시 보고, 고쳐 쓰다 보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글쓰기의 보편 진리에 눈뜨게 될 것입니다.

01

퇴고는 왜 할까?

발자크의 단편 중 「알려지지 않은 걸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유명한 화가가 자신의 최고 작품이 몇 군데 미완성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한 젊은 화가가 그를 찾아갑니다. 대가는 젊은이에게 숨겨둔 대작을 보여주면서 작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감격하며 설명하지만 그 작품을 본 젊은이는 경악합니다. 캔버스 위의 그림이 산만하게 떡칠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 동안 수정

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아름다웠던 원래 그림은 묻히고 덧칠 자국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발자크는 이 대가의 이야기를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완벽주의자였던 대가의 경우를 통해 예술에서의 완성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싶었던 걸까요?

문학과 비문학의 퇴고

프랑스의 시인이자 작가인 폴 발레리는 "작품을 완성할 수는 없다. 단지 어느 시점에서 포기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작품을 종결 짓게 만드는 건 항상 피로나 만족감, 원고 제출 마감일, 혹은 죽음 등과 같은 외적인 요인 때문이지 작품 자체의 속성이 종결되는 건 아니다. 문학작품이란 작가 내면의 지속적인 변화를 꾸준히 반영하는 하나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
> –「글쓰기의 기쁨」(롤프-베른하르트 에시히 지음)에서 재인용

작가나 예술가들이 작품에 공을 들이고, 수없이 개작하고 퇴고를 거듭한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발레리의 말처럼 예술에서 '완성'이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플로베르가 『보바리 부인』을 쓰는 데 5년이 걸렸다는 얘기나 헤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400번이나 고쳐썼다는 얘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맬컴 로리는 자신의 대표작인 『화산 아래서』라는 작품을 최소 네 번은 새로 고쳐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이 강했던 그였기에 결국 출판사 편집자가 거의 빼앗다시피 하며 원고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리는 그 후에도 계속 수정을 요구했고, 교정쇄를 받고 나서 또 고치려 했다고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일 수도 있지만, 작가들은 누구보다 글에 민감한 사람들이니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안도현 시인은 『가슴으로도 쓰고 손끝으로도 써라』(한겨레출판, 2009)에서 "퇴고를 글쓰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퇴고는 처음이면서 중간이면서 마지막이면서 그 모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김소월의 예를 듭니다. 소월의 유명한 시 「진달래꽃」은 1922년에 처음 발표되었고, 그 후 3년의 퇴고 과정을 거쳐 1925년에 시집에 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시는 걸음걸음 / 놓인 그 꽃을 /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는 "가시

는길 발거름마다 / 뿌려노흔 그 꽃을 / 고히나 즈려밟고 가시옵소서"라고 썼던 걸 고친 버전이라고 합니다.

문학에서 퇴고가 중요하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문학 저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실 비문학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글쓰기에 퇴고는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구본준 기자가 쓴 『한국의 글쟁이들』(한겨레출판, 2008)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저술가 18명과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국문학자이면서 대중적 책쓰기를 통해 고전문학과 한시의 아름다움을 알린 정민 교수 역시 글쓰기에서 퇴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무엇보다 '전달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나면 무조건 세 번씩 소리 내서 읽어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아내에게 읽어달라고 해서 읽다가 멈추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곳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뭔가 문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본 거지요.

그는 "글쓰기에 있어 아름다움을 전혀 중시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달력을 중시하고,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를 최대한 줄이고, 접속사를 피한다고 합니다. 글의 리듬을 살리고 언어의 경제성을 따진다고 합니다. 아무리 공들여 쓴 표현

이라도 퇴고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가차 없이 잘라내고요.

같은 책에 실린 한비야 씨 역시 퇴고를 수십 번씩 한다고 합니다. 책이 술술 읽혀서 글도 쉽게 쓰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퇴고를 거친 결과라고 합니다. 교정지가 '딸기밭' 정도가 아니라 '불바다'가 될 정도로 빨간펜의 활약이 맹렬하다고 합니다. 문학평론가로 서평책도 여러 권 낸 정여울 씨 역시 퇴고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실감했음을 고백합니다.

>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퇴고는 글쓰기가 다 끝난 후의 마무리 작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퇴고부터가 진짜 글쓰기의 시작인 것 같아요. 글쓰기의 작업을 거칠게 세 단계로 나눠서 '고안, 집필, 퇴고'로 볼 때, 전에는 1:8:1 정도의 시간과 공력을 들였다면 이제는 4:2:4의 비율로 바뀌고 있어요. 게다가 글쓰기의 절대 시간은 더더욱 늘어났고요. 최근에는 퇴고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퇴고는 자신의 글로부터 유체이탈하여 자신의 글에 대한 최초의 독자(타인)가 되어보는 경험인데, 이 시뮬레이션이 더 치밀하게 이루어질수록 자신의 글쓰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듯해요. 내 문장에 구토가 나오는 순간까지 고치보지 못한 글은 끝까지 후회가 되죠.

– 『그러니까 당신도 써라』(배상문 지음)에서 재인용

글쓰기 초짜와 타짜의 차이

자신의 문장에 구토가 나올 때까지 글을 고쳐보지 않으면 후회가 된다고 하는 저자는 자신의 글에 굉장히 엄격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고가 글쓰기가 끝난 후의 마무리 작업이 아니라 진짜 글쓰기의 시작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또 한번 퇴고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배상문은 『그러니까 당신도 써라』(북포스, 2009)에서 글쓰기의 '초짜'와 '타짜'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초짜는 글을 쓰기 전에 고민하는 시간이 길고, 타짜는 글을 쓰고 나서 고민하는 시간이 길다. 초짜는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탄성을 내지르고, 타짜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한숨을 내쉰다." 이렇게 초짜와 타짜가 다른 건 글을 보는 안목의 차이에서 옵니다. 눈이 낮으면 고칠 것도 없어 보이고 당연히 퇴고도 느슨해지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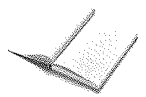
『대통령의 글쓰기』(메디치미디어, 2014)의 저자 강원국은 노무현, 김대중 두 대통령의 연설비서관직을 수행하면서 대통령의 글쓰기를 가까운 거리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을 책으로 냈습니다. 그는 글에 대한 두 대통령의 안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대통령은 눈이 높았다. 한마디로 고수다. 고수일수록 퇴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실제로 쓰는 시간보다 고치는 시간이 더 길었다. 초고가 완성되면 발제 정도가 끝난 것이다.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글쓰기 시작이다. 고치는 것은 마감 시한도 없다. 연설하는 그 시각이 마감 시각이다. 그때까지는 계속 고친다."

예술가든 작가이든, 인문학자든 연설가든 글을 쓰는 모든 사람에게 퇴고는 글쓰기의 거의 모든 것이라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글의 완성도를 위해 고치고 또 고치는 일은 글쓰기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퇴고 과정이 고통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퇴고는 완성도가 높아지는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에 희열을 느끼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가 즐거운 고통이 되는 것이지요. 파괴를 통한 창조의 과정이면서 미적 안목을 만족시켜주는 과정이 될 테니까요.

퇴고는 일종의 부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갓 완성한

초고를 달걀을 품듯 오랫동안 품고 있다면 달걀을 깨고 건강한 병아리가 태어나듯 더 좋은 글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퇴고는 글에 담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좀더 명료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는 것, 즉 퇴고의 달인이 되는 길은 결국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02
퇴고할 때 주의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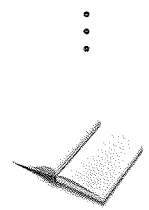


퇴고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글쓰기 관련 책을 보면 퇴고할 때 체크할 리스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제가 확실하게 드러나는가, 서술이 논리적이고 단락 연결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 문장은 간결하고 명료한가, 좀더 구체적으로는 주술 호응이 맞는가, 또 단어 사용이 적절하고, 반복은 없는가,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제대로 되었는가 등에 유의하라

짚었습니다. ④에서는 책에서 사용된 독특한 용어 사용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고, ⑤에서는 책에서 영화나 만화 등 대중문화적 요소를 가져온 점에 점수를 주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듭니다. ⑥에서는 저자의 가치관이나 주제를 함축하는 촌철살인의 문장을 장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⑦에서는 그러한 문장들을 인용하고 있고요. 마무리 문단인 ⑧에서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기 위한 좋은 지표'가 될 만한 책이라고 추천 이유를 얘기하고 있고, 이 전체 평가가 서평 제목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책 속의 용어이면서 동시에 서평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말을 이용해 독자에게 말을 걸고 있고요. 이 책이 독자에게도 삶이 바뀌는 하나의 '사건'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무리 센스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게 시작해서 마무리하고 있는 서평입니다. 저자에 대한 소개와 책 소개를 적절하게 하고 있고, 무엇보다 자신이 평가하는 책의 가치와 특장점에 대한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시된 점이 돋보이는 서평입니다. 비문학 서평에서 중요한 책의 내용 정리와 책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균형 있게 잘 드러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04
퇴고 습관을 위한 매일 10분 글쓰기



퇴고란 글을 더 좋게 만드는 일입니다. 한 번에 좋은 글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글쟁이들도, 작가들도 초고는 '쓰레기'라고 말할 정도로 퇴고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작가 김연수는 『소설가의 일』(문학동네, 2014)에서 "글을 쓰려면 초고를 써야 하는데 초고를 쓰면 글을 쓰기가 싫어진다"고 하면서 창작의 딜레마를 호소합니다. 그는 초고를 쓸 때 "음식물쓰레기통에서 넘쳐흐른 것만 같은 문장"을 써내려

가는 것 같다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퇴고의 즐거움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왜 쓰는가?라는 한 인터뷰 질문에서 그는 "조금씩 조금씩 고치는 즐거움"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는 즐거움을 알아가기 때문에 계속 쓴다"라고 말합니다.

잘 써야 한다는 강박 없이 매일 쓰기

더 나아지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퇴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지는 글을 쓴다는 건 결국 좋은 글을 쓰는 것이고,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계속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쓴다는 건 결국 글쓰기를 습관처럼 하는 것이겠지요. 많은 글쓰기 책들이 글쓰기 습관을 키우라고 강조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작가 수업』의 저자 도러시아 브랜디는 하루 15분 시간을 내어 글쓰기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조언이 아니라 거의 '경고' 차원에서, 글쓰기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매일 15분의 시간을 자신과의 약속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실천하라고 합니다. 만일 이 훈련에 실패하면 글쓰기를 포기하라고 하면서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문학사상사, 2009)를 쓴 무라카미 하루키 역시 글쓰기에서 중요한 것으로

'지구력'과 '집중력'을 꼽고 있습니다. 책을 낸 시점까지 23년간 스물세 번의 마라톤 풀코스를 뛴 그는 자신은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자신이 설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느냐 아니냐이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해왔다고 말합니다. 글쓰기 습관에 응용해본다면, 매일 15분의 시간이든, 원고지 10장의 분량이든 목표를 정해놓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작가 김훈의 경우도 '필일오(必日伍)'라고 써서 책상 위에 붙여놓고 하루에 원고지 5매를 꼭 쓴다고 합니다.

물론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는 작가를 목표로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글이든 잘 쓰기 위해서는 꾸준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줄리아 카메론의 '모닝 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매일 아침 의식의 흐름을 좇아 3쪽 정도 적어가는 모닝 페이지는 글쓰기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좋은 방법이며 동시에 글쓰기 습관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쓰기가 습관이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글쓰기의 두려움 때문이고, 그 두려움이란 처음부터 잘 써야 한다는 강

박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검열관을 무시하고 소재나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매일 의식이 흐르는 대로 글쓰기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글쓰기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가 습관이 되면서 다양한 글쓰기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보는 안목 높이기

퇴고를 잘하기 위해 중요한 또 한 가지 조건은 글을 보는 안목을 높이는 일입니다. 퇴고를 한다는 건 더 좋은 글을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글에 대한 안목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신이 쓰고 싶은 만큼 잘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글쓰기를 포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대체로 잘 쓰지는 못해도 잘 쓴 글을 알아보는 안목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글쓰기가 고통이 될 수도 있겠지요. 원하는 만큼 글이 되지 않아서 자괴감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앞서 두 대통령의 안목에 대해 언급했던 것처럼 안목이 높을수록 퇴고의 인내심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퇴고의 끝이 연설하는 시각이라는 말은 퇴고란 끝이 없고, 거의 외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작가나 저자의 경우 출판사에 원고를 넘겨야 하는 시각이 되겠지요. 그만큼 좋은 글, 최고의 글이란 어쩌면 하나의 이상이며, 우리는 그 이상을 좇아 최대한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라는 것은 안목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를 아는 것이 안목이 될 텐데, 결국 안목을 기르는 방법은 글을 많이 접하는 것입니다. 좋은 글을 많이 읽고, 필사도 해보면서 글의 감각을 기르다 보면 좋은 문장, 아름다운 글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됩니다.

글쓰기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어보는 것도 글쓰기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글쓰기 책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장르별 글쓰기를 안내하는 책들, 예를 들어, 시나 소설 같은 문학적 글쓰기나 비문학적인 글쓰기 책이 있겠지요. 요즘은 세분화되어 영화 리뷰 쓰기, 수필 쓰기, 자서전 쓰기 등 다양한 책이 나와 있습니다. 또는 『글쓰기는 주제다』와 같이 글쓰기의 논리를 중심으로 다루는 책들도 있고요. 나탈리 골드버그의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한문화, 2013), 『글 쓰며 사는 삶』(페가수스, 2010)처럼 글쓰기에 영감을 주는 책도 있습니다.

이런 책들이 글을 쓰는 데 동기부여를 하거나 글의 전체적

인 구성이나 논리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퇴고에 도움을 주는 책들도 있습니다. 한글의 문법, 맞춤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바른 문장 쓰기까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책들이지요. 장하늘의 『글 고치기 전략』(다산초당, 2006)과 배상복의 『문장 기술』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자는 '문장력을 키우는 10가지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 좋은 글을 만들기 위해 따져봐야 하는 문제들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장 기술』은 '문장의 십계명' 즉 간단명료하게 작성하기, 중복 피하기, 호응의 중요성, 피동형 피하기, 단어의 위치, 적확한 단어 선택, 단어와 구절의 대등한 나열, 띄어쓰기, 어려운 한자어 대신 쉬운 말 쓰기, 외래어표기법 원칙 알기에 대해 구체적인 문장 예시를 들어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이재성의 『글쓰기를 위한 4천만의 국어책』(들녘, 2006)은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 문법을 설명합니다. 이처럼 좋은 문장 쓰기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글쓰기 연습 책에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희모, 이재성 공저의 『글쓰기의 전략』(들녘, 2005) 또한 글쓰기의 의미에서부터 시작해서 글의 구성, 바른 문장 쓰기까지 많은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 참고할 만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글쓰기 책이 나와 있으니, 각자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선정해서 읽으면 됩니다. 우선 한국어의 바른 쓰임을 익히는 글쓰기 책을 선정해서 항상 참고하고, 퇴고할 때도 들춰보면 좋을 것입니다. 그 외 글쓰기를 자극하는 책, 작가의 글쓰기에 관한 책 등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찾아서 읽으면 글쓰기에 동기부여도 되고, 좋은 글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목이 높아지면 퇴고의 질도 당연히 높아지게 되겠지요.